강진 군동농협 '경제사업' 큰 손실

마른 김 52억어치 구매 대부분 재고 남아

조합원들 특정업체 납품·구매 의혹 제기

강진군 군동농협(조합장 김재원)이 5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중인 마른김 경제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인해 조합의 적지않은 손실이 우려된다.

19일 군동농협 등에 따르면 군은 대출감소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들자, 지난 2007년 마른김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7년 10억원, 2008년 42억원 등 52억원의 예산으로 마른 김을 사들였다.

그러나 지난 6월 현재 A 김가공공장에 14억여원 어치를 납품했을 뿐, 94만여속·38억여원 어치의 재고가 농협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A 가공공장과 전량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판로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마른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데, 농협은 사업 초기에 계약한 단가로 매입해 조합손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제사업을 특정업체에 독점납품하기로 한데다, 마른김 매입통로도 A 가공공장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전량 매입해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농협자료를 보면 2008년 1~4월 1속당 평균 3천8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 가격은 같은 기간 마른김 통상거래가격보다 800원~1천원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농협과 업체간 유착도 입쌀에 오르고 있는 상태다.

다른 김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마른김 매입가격이 매달 똑같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마른김 가격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농협이 고정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동농협 관계자는 "그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독려해 왔으나, 여의치 않아 궁여지책 끝에 추진한 게 마른김 사업"이라며 "마른김은 장기간 보관해도 큰 문제가 없고, 지난 4월 중앙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과는 달리 이달 11일부터 3일간 실시된 농협중앙회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군동농협이 A 가공공장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마른김 4억7천만원 어치가 없어진 것으로 밝혀져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A 가공공장이 10억원대 이상의 사채를 주위에서 끌어들인데다, 농협 임직원 일부가 이 가공공장에 사채를 주고 높은 이자수익을 챙겼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A 가공공장 대표 김모(43)씨는 회사문을 닫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동농협 조합원 박모씨는 "마른김 사업에 대해 2008년부터 조합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관계자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다"면서 "조합돈으로 이처럼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군동농협은 자산 500억원, 예치금 400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농협으로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축제 찾은 어린이들 포도 빨리 먹기 지난 17일 열린 제 6회 담양 고서 포도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포도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고 있다. '남보랏빛 열매의 황홀한 유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2만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담양군 제공〉

장성 '안 떫은 감' 향토산업 육성

'감 젤리' 등 가공식품 개발… 체험장도 조성

장성군이 향토자원인 감을 이용해 유·무형의 상품으로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감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감 생산뿐 아니라 수확·유통·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6차 융합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25ha 규모의 감단지에 키노산, 유박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감 원재료 특화생산기반을 조성했으며, 떫은 맛을 없애는 탈삽(脫澁)기술과 단감 분말화 기술을 확립했다.

또 감 선과장, 탈삽시설, 저온저장고 등 396㎡ 면적의 감 가공시설을 착공해 공사중에 있고 전남대학교에 의뢰해 감 고추장, 수정과용 감 젤리 등 감 가공식품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감을 직접 수확하고 가공식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감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어 오는 11월 백양 단풍축제와 연계해 소비자 초청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감 가공식품의 상품화 및 특허출원, 마케팅을 위해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 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차별화가 가능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차적인 감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가공·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감 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함평 4개 농협, 주민세 대납 호평

1만1천400여 세대 혜택

함평군 4개 농협이 지난해에 이어 관내 전 세대의 주민세를 대납해 주기로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농협(조합장 김형모), 손불농협(조합장 김준안), 천지농협(조합장 정태연), 월야농협(조합장 정상진) 등 4개 농협은 관내 총 1만1천400여 세대의 2009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6천300여 만원을 대신 납부키로 했다.

이는 세대당 5천500원의 소액이지만 농협의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조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 발전하는 농협상 정립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 새얼굴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최선"

신 현 주 한전함평지점장

"고객만족경영에 주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함평지점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신현주(55) 한전 함평지점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해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담양출신인 신 지점장은 전남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8년 한전에 입사, 전남본부 영업총괄팀장과 서광주지점 영업운영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조춘희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나주 생태물놀이장 인기 만점

6천500명 이용… 이달말까지 무료 운영

지난달 31일 문을 연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에는 1천800여명, 16일에는 1천700여명 등 주말과 휴일에만 모두 3천500여명이 몰리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현재까지 6천5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주말과 휴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쉼터 곳곳이 만원이었고, 뒤늦은 입장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1만㎡의 넓이에 4억여원을 들여 조성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은 쉼터와 데크시설, 화장실과 샤워실, 관리실과 정화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최영희 나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시민들이 한여름 더위를 식히고 즐겁게 휴식을 취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이달 말까지 무료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쉼터를 늘려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힘쓰는 등 올해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대불부두 안벽 추가 개발을

목포항만, 항만기본계획 수정 요구

"대불부두 안벽 추가 개발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이 시급하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무역항인 목포항, 완도항과 연안항인 신안군 홍도항, 흑산도항, 송공항, 강진군 신마항 등의 항만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되고 섬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요구는 국토해양부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목포항만청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대불부두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안벽 추가 개발', 목포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준설토 투기장 조성', 목포 남항 투기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 목포 내항 수산관련시설의 북항으로의 이전을 위한 배후부지 개발사업 추진 등이다.

또 완도항에 대해서는 물류수송을 위한 임항도로 건설, 해경 전용부두 및 안벽 추가 개발 등을 요구했다. 연안항인 홍도항과 송공항은 방파제 조기 개발, 흑산도항은 관광객과 주민 편익을 위한 물양장 확장과 여객선 터미널 개축 등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장성 맞춤형 토양관리

주요 농산물 품질 향상

장성군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토양관리를 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ICP(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 광도계, 쌀 품질분석기 등 총 17종의 장비를 갖추고 주요 작물 재배지의 토양을 검정할 수 있는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 검정실은 농지의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후, 재배작물 특성에 맞는 처방을 내려 농산물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선토록 농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1천300점 등 총 5천여 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